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주교님들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정교회의 모든 양떼에게 보내는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성탄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존경하는 성직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께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이 놀라운 사건을 찬송하면서 이 사건이 깨달음의 빛, 즉 창조주에 관한 참된 지식으로 세상을 밝혔음을(대축일 찬양송) 증언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것이 아니며 꺼지지 않는 이 빛이 우리 모두를 밝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1 요한 5:19) 오늘날에는 사실상 그 악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도 더욱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악과 어둠에 대한 선과 빛의 승리에 가능한 한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페소 6: 12)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의하여 천상에서 쫓겨나 세상 창조 이래 인류의 원수인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보호자이신 주를 모시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자신, 가족, 이웃을 시작으로 지상에 평화와 선을 조성하는 깊은 영적 활동을 통해 이 싸움에 저항할 수 있고 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미덕을, 불신앙의 삶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기도, 회개, 자비의 행위로 맞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많을수록 악이 스며들 여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한 교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선이 결핍된 곳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둠이 자체적인 근원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빛이 희미해지는 곳에서만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과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합시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거듭해서 성탄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 세르기

2025 년 성탄절 싱가포르에서